

신안, 청소년 맞춤형 성장 지원 ‘미래인재 육성’

도서지역 청소년 대상 진로 탐색·자립 역량 강화 원에·과학교실 등 학교·아동센터 찾아 현장교육

신안군이 청소년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에 나선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도서지역 청소년들이 겪는 체험 기회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자

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안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통해 학업과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학교·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특화 사



신안군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제공=신안군청

업은 총 6개 기관, 12회 운영, 2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초코 디저트(두췌

쿠키, 마카롱 만들기, 원예(테라리움) 활동, 과학교실(AI 사족보행 로봇 스텝봇 만들기) 등 실습 중심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기관은 자은초등학교, 섬드리지역 아동센터, 암태초등학교, 하의중학교, 비급초등학교, 증도초등학교이며,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비급공립지역아동센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기획단 위원 20여명이 5월 29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박람회 참여를 통해 다른 지역 청

소년과의 교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청소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학교, 지역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동물원 조류 관람을 재개하고,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 흥학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 가정의 달 ‘특별한 경험’

내달 3~5일 특별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순천만국가정원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동물원 조류 관람을 재개하고,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돼 정원 속에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간 어린이동물원 일원에서 특별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정원

에서 시작된 설렘이 동물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며, 아이들의 경험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파충류·양서류·곤충 등 총 37종 103마리의 다양한 생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특별전시가 마련된다. 레오 파드게코, 브래킹스네이크, 청개구리, 화이트트리프록, 장수풍뎠이 등 인기 종이 전시되며, 거북이 등껍질 구조 관찰, 파충류 허물 만져보기, 곤충 생태 밀착 관찰 등 체험을 통해 ‘작은 생명’

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 사육사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생태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순 관람을 넘어 교육형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전시 동물을 주제로 한 ‘알송달 송 OX 퀘션지’가 진행된다. 다양한 문제를 통해 동물의 특성과 생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참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퀴즈를 풀며 생명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를 높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움직이는 곤충 만들기, 장수풍뎠이 유충 집 꾸미기, 곤충 만화경 만들기 등

창의력과 생태 감수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흥학 관람 재개와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동물원을 체험과 교육이 결합된 생태 공간으로 한층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생명이 공존하는 최고의 생태 놀이터이자 가족형 체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진도 ‘진도전남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실 운영 시작...의료 공백 해소 기대

진도군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7일 ‘남우의료재단 진도전남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진도전남병원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진료를 시작했다. 그동안 진도군에서는 야간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목포, 해남 등의 응급실로 이송해야 해서 결정적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의료

기반 확충’을 주요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전남병원의 응급실 개소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응급실 운영을 통해 진도군민들은 신속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전라좌수영 독제 모습. 사진제공=여수시청

여수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 개최

거북선축제 맞춰 내달 2일 첫 공연...11월까지 8회 운영

여수시는 2026년 여수 문화예술 브랜딩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좌수영 독제·수군출정식’의 올해 첫 공연을 제60회 여수 거북선축제 기간 중인 5월 2일 진남관에서 선보인다. ‘전라좌수영 독제’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여수)에서 출정에 앞서 군기에 지냈던 제사를 재현한 것으로, 정 부 전통예술 재현 복원사업 1호로 선정된 여수의 대표 호국 문화예술 콘텐츠다. 올해 공연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흑서기(7~8월)를 제외한 11월 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정 토요일(5월 2·23일, 6월 13일, 9월 9·19일, 10월 10·24일, 11월 7

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순신광장과 진남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3부로 다채롭게 구성된다. 1부는 전라좌수영 독제로 고종에 임박한 제례, 2부는 군점·수군출정식과 시립국악단 전통취타대 행렬, 3부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전통기반 창작 공연으로 꾸며진다. 또 시는 행사 인지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 회차 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행사장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홍보 물품을 제공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영암, 광주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내달 8~9일 계림아이파크SK뷰...2년째 도농 상생장터

영암군이 광주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도농 상생 교류를 이끈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광주 동구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 광장에서 ‘영암군 & 계림아이파크SK뷰 상생한마당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장터에서 7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 힘입어 2년째 이어지는 행사다. 행사에는 영암 지역 19개 업체가 참여해 무화과 가공식품, 민물장어, 전동주, 김지류, 유제품, 잡곡류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시식과 판매가 함께 이뤄지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영암지역상품권과 유기농 쌀, 쇼핑카드 등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상생한마당 직거래장터 모습.

군은 이번 장터를 통해 도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일회성 판매를 넘어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순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지난해 장터에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 현장 기술교류로 재배 역량 강화

블루베리 공선출하회 우수농가 컨설팅

곡성군이 지난 16일 곡성을 대평리와 입면 제월리 일원에서 지역특화품목인 블루베리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공선출하회 우수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컨설팅은 공선출하회 농업인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조기재배 우수 농가 2개소를 방문해 재배기술 교류와 현장학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현장 컨설팅에서는 농가별 재배환경과 생육 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전정, 양분·수분관리, 온도관리 등 생육기 핵심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도가 이뤄졌다. 곡성을 대평리 농가에서는 양액 재배 기반의 정밀 관리기술이 공유됐다. 특히, 적정 pH 유지와 관수 조절, 생육 단계별 비료 배합 관리, 병해관리 등을 통해 수세를 안정시키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유도하는 기술이 소개됐다. 또한 하계 전정 시기와 방법, 신초 확보를 통한 수형

관리 등 생산성 향상 노하우도 함께 다뤄졌다. 입면 제월리 농가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배지관리와 생육단계별 비료 공급 전략, 병해충 대응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과실 비대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 시비 조절, 후기 생장 억제를 통한 품질 향상 관리기술과 함께 총재류·민달팽이 등 주요 병해충 대응 요령이 제시됐다. 이번 순회컨설팅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우수 농가의 실제 재배 현장을 기반으로 진행돼 농가 간 기술 교류와 문제 해결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선출하 체계를 중심으로 블루베리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출하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순회컨설팅이 농가 기술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wsl1@gwangnam.co.kr

화순사랑상품권, 내달부터 지류 할인율 하향

구매 한도 월 70만→50만원

화순사랑상품권의 지류 할인율이 5월부터 10%로 하향된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화순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2%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할 12%를 유지한다. 구매 한도는 월 통합 70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축소된다. 지류 상품권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며,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된다. 보유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분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군은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착)’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